

줄이고, 합쳐서 10년새 ‘반토막’... 증권사 ‘점포 다이어트’

〈점포수〉

비대면 거래 늘면서 통폐합 가속
10년동안 점포 1734개→898개
무인 키오스크 STM 설치 늘리고
지역 특색 맞춘 특화점포로 전환



증권사들의 점포수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점포수를 줄이는 와중에도 점포의 대형화, STM(스마트텔러머신)을 확보하는 등 오프라인 고객들의 수요까지 확보하는 모양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57개 증권사의 지점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89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말 909개보다도 11개 감소한 수치다.

최근 한화투자증권에서 반포지점을 리더스라운지강남지점으로 통합 이전 한 가운데 3분기에만 3개의 국내지점이 감소했다. 이 외에도 KB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에서 일부 점포수 조정을 진행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2년 3분기말 1734개에 달했던 국내 증권사 점포수는 올 3분기까지 48.21% 가량이 사라졌다. 또 2012년 이후 매년 3분기말 기준 지점수는 ▲2014년 1299개 ▲2016년 1179개 ▲2018년 1108개 ▲2019년 1046개 ▲2020년 986개 ▲2021년 951개 등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근처 지점과 통합하는 등 각 지점의 효율

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각 지점별로 자산관리와 같은 특화 점포로 운영방식을 변화하는 등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담금융센터’를 서울 강남구 명품거리로 확장시켰다.

방문객이 별도 창구로 이동할 필요없이 상담부터 가입까지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상담실을 마련했다. 여기에 국내 프라이빗뱅크(PB) 1세대이자 PB교육과 리서치 상품 개발 등을 거친 염정주 센터장을 비롯해 씨티은행에서 10억원 자산이용자를 위한 최우수자산관리전문가 8명 등 자산관리 인력을 강화했다.

이들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뿐 아니라 상속증여, 세무, 부동산 상담 등 토털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고객의 최적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STM(Smart Teller Machine)을 증권사 센터에 최초로 도입했다. 강남금융센터에 설치했으며, STM을 통해 휴대폰거래 신청 및 공모주 청약, 안내 및 수신방법 변경, 바이오 인증 등록 등 고빈도 업무처리를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플래그십 서비스 정착과 전국적 확대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NH투자증권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강남금융센터 외에도 전국 센터를 대상으로 STM 설치 지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명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서학개미, 테슬라·반도체 등에 하락 베팅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주가 폭락에 ‘몰타기’
반등 기대감 안고 순매수세
美 증시 하락 기술주도 좁좁

미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기술주에 대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가 엇갈리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연일 하락하고 있는 테슬라주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순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반도체 등 기술주들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15~21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은 테슬라다. 1억6919만달러어치가 몰렸다. 또한 테슬라의 일간 수익률 1.5배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1.5X 셰어즈(TSLL)에도 1548만달러가 유입됐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주가의 낙폭이 컸던 만큼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믿고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서학개미들의 매수세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1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주가는 6.84% 하락한 167.87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달리 미 증시

〈국내투자자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순매수결제액
1	TESLA INC	1억6919만달러
2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EAR 3X ETF	6915만달러
3	PROSHARES ULTRAPRO SHORT QQQ ETF	5660만달러
4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	2925만달러
5	DIREXION DAILY TSLA BULL 1.5X SHARES	1548만달러
6	LUCID GROUP INC	1485만달러
7	TSMC	1480만달러
8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1315만달러
9	WALT DISNEY CO	1151만달러
10	VANGUARD SP 500 ETF SPLR 39326002188 US9229084135	950만달러

11월15~21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하락에 베팅을 걸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배 ETF(SOXS)를 6915만달러어치 순매수한데 이어 나스닥100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인버스 ETF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QQQETF(SQQQ)를 5660만달러어치 사들였다.

미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서학개미들은 미국 증시 상승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 증시는 미 CPI 호조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지속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미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는 중국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다”며 “특히 폭스콘 고용 중단 소식으로 애플과 부품주, 반도체 업종의 하락이 뚜렷했으며 리콜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전기차 관련 종목군의 부진도 나스닥 하락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미 증시 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 미국 주식 담당 수석 전략가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 약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당분간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 1분기에 S&P500지수가 3000에서 3300선까지 하락한 뒤 연말엔 3900선까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

채권 전문가 70% “베이비스텝 전망”

내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서
기준금리 0.25%p 인상 전망

국내 채권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스텝(0.25%p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185개 기관, 816명)를 설문 조사해 ‘2022년 12월 채권시장지표(BMSI)’를 산출한 결과 종합지표가 한 달 전보다 8.0포인트(p) 상승한 103.8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인원의 응답으로 산출되는 BMSI는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금리전망 BMSI가 116.0으로 전월(97.0) 대비 호전됐다. 응답자의 25%가 금리상승에 응답해 전월(40%) 대비 15%p 하락했고,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은 41%로 전월(37%) 대비 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금융당국의 채권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와 주요국 긴축 속

도조절 기대감으로 12월 금리상승 응답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물가BMSI는 128로 물가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86) 대비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가 물가상승에 응답해 전월(23%) 대비 17%p 하락했고, 물가하락 응답자 비율은 34%로 전월(9%) 대비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미국 물가지표 상승세 둔화에 따른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12월 물가상승 응답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율 BMSI는 114으로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45)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0%가 환율상승에 응답해 전월(58%) 대비 38%p 하락했고, 환율하락 응답자 비율은 34%로 전월(3%) 대비 3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조절론 부상과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여 12월 환율상승 응답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에 AI 활용

고객 수익률·사용 편의성 제고

미래에셋증권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연금 사업 부문 디지털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운용 역량은 물론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은 단순 포트폴리오 제공을 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자산관리 서비스(AI PB)를 준비하고 있다.

AI PB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적립금 조치는 물론 상품의 운용과 리밸런싱, 연금 제도에 대한 상담까지 한 번에 진

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AI를 통해 분석된 투자 및 제도 정보를 고객에게 적시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한 고객의 궁금증 상시 해소와 더불어, AI PB는 연금자산관리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연금 고객의 자산관리 편의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삼성자산운용 만기 매칭형 채권 ETF 2종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ETF’, ‘삼성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만기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2종은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ETF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까지다. 이 상품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더불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만기 기대 수익률에 더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서 예상한 기대 수익률 수준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마치 정기예금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가입금액의 제한이 있고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큰 예금과 달리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중도 환매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쌓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는 현재 매수 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ETF를 매수할 수 있다.

/원관희 기자